

북스

세계적 예술가에 영감을 준 '뮤즈'

어린이 책꽂이



▲아버지의 우산=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이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남과 북 양쪽에서 백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얼음꽃을 심킨 아이=현직교사 작가 박향씨의 첫 장편소설...



▲동화 작가 조성자와 떠나는 투브르 박물관=조성자씨가 투브르 구석구석을 다니며 얻은...



▲우리 역사를 읽은 8명의 학자 이야기=위대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꿈쩍도 하지 않지!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니모를 찾아서'를 만든 토니...



▲아무도 모르는 일=1991년에 단행본 동화를 써온 작가 정진숙씨의 첫 번째...

▲여름휴가=우리 그림책 시리즈 3권. 코골이라는 재미난 소재로 온 가족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낸다는...

예술가의 탄생...

유경희 지음



비틀즈의 존 레논을 이야기 할 때, 그 여자 오노 요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생산해온 예술가들의 예술혼을 자극했던 요인들을 살펴본 책이 나왔다.

창작의 근원으로 삼은 예술가들도 있었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철학 자체를 예술의 출발로 여긴 이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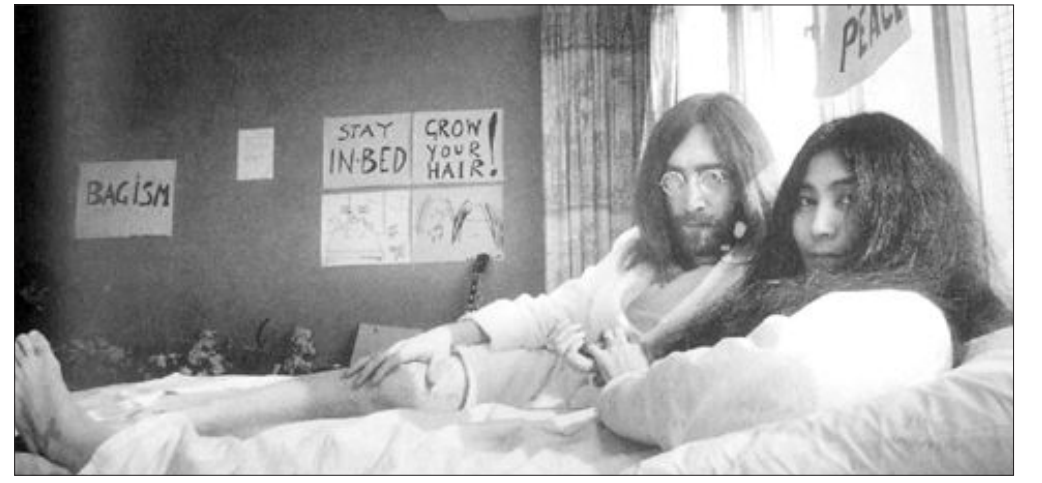
비틀즈가 해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노 요코는 비틀즈 멤버들과 팬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다.

전위적 예술가이며 개념미술가였던 그녀는 존 레논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입지를 공고히 했고, 존 레논 역시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우월했던 오노 요코를 뮤즈와 멘토로 숭배, 자신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

여성을 소재로 세기말적이고 통렬적인 분위기의 그림을 그려 '퇴폐한 예술가'로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구스타프 클림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동생의 처제인 에밀리 플뢰게와 40여명의 편지를 주고 받으며 예술과 인생을 논했고, 그것들은 그의 작품의 영감이 됐다.

화가로서는 드물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균형성 왜소증을 앓았던 앙리 드 트루즈 로트레크에게는 몸마르트의 창녀들이 안식처였고, 그녀들에게 느꼈던 동병상련의 일체감은 로트레크로 하여금 위선과 가식을 벗어던지고 창작에 몰입하게 했다.

반면 대중문화의 싸구려 산물과 일상의 물건들을 예술로 끌어올린 현대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예술혼을 자극한 것은...



오노 요코와 존 레논은 서로의 예술혼을 자극한 뮤즈였다.

홀의 예술혼을 자극한 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다는, '명성'이라는 실제 없는 욕망이었다.

책에서는 그밖에 예술과 일상의 조화를 꾀한 실험적인 예술가지만 평생을 은둔하다시피 채스 두는 일로 보냈던 마르셀 뒤샹, 광기를 지배하는 여자와 순수하고 자기희생적인 두명의 여성과 더불어 예술의 황금기를 누렸던 모딜리아니, 프란시스코 고야, 잭슨 폴록, 폴 고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예술가들의 작품과 관련 사진 등도 풍성하게 실었으며 각 꼭지 말미에 예술가와 관련된 사조, 한 예술가와 연관된 다른 예술가들을 따로 '아트 팁'으로 묶어 미술사적 정보도 제공한다.

2003년에 발간됐다 절판된 '예술가와 뮤즈'의 개정판이다. (아트북스·1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느리게 살면서 배우는 삶의 가치

슬로시티를 가다

장정희 지음



오염된 환경과 건강하지 못한 먹을거리, 경쟁과 성과 위주의 고된 일상으로 삶의 가치와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환경과 그림의 미학에 애착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소설가 장정희씨가 쓴 '슬로시티를 가다'는 세계슬로시티연맹 본부의 실사를 거쳐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슬로시티 다섯 곳을 가늠해 느리게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우는 행복한 여정을 담은 여행에세이다.

작가는 안도 청산도에서 시작해, 장흥 유치, 하동 악양, 신안 증도, 담양 창평을 거니는 여정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건강한 먹을거리,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슬로시티의 미학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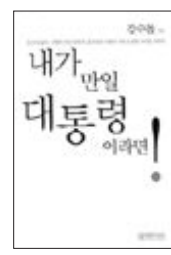
장씨는 책에서 그림의 미학으로 자신이 체험한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먹을거리, 공동체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삶의 건강성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장씨는 영광 출생으로 전남대 국문과를 나와 2004년 '문화와 경제'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했으며 지난해 첫 작품집 '흙, 스위트 흙'을 냈다. 광주대광여고에서 교사로 재직중이다. <유먼&북스·1만4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마을 이장된 교수, 무슨 꿈을 꾸까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강수들 지음



진보적 경제학자 강수들 교수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초치원 신안1리 마을 이장을 하며 꾸무었던 이야기를 엮어 모아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으로 엮어냈다.

강 교수는 이장 역임에 대해 진정한 마을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고, 자신이 공부하고 깨친 이론적 입장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투성이의 한국사회가 행복감에 충만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싶다는 일들은 이렇다. 용산 참사나 천안함 참사의 유가족을 찾아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쌍용차와 같은 노동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미디어법을 폐기하고, 특목·자사고를 폐기하고, 고교·대학 평등화를 시도하고,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대우하는 것들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통일문제의 해결 방안이 관세이다. 지금처럼 남한과 북한이 기권관자들끼리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중'이 서로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토론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외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슈가 되었던 여러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행복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박하면서도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생각의나무·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디언들의 자연과 교감 방법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트 카터 지음



오랜 세월 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의 영문판과 한글판을 한 권으로 묶은 영한대역본이 출간됐다.

1976년, 미국에서 'The Education of Little Tree'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발간된 지 15년, 저자 사후 12년이 지나고서야 제대로 평가된 특이한 책이다.

저자 포리스트 카터의 자전적 성장 소설이기도 한 책은 5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어린 나무'(저자의 어릴 적 인디언 이름)가 체로키족 인디언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체로키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백인들의 인디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산 속에서 살게 된 조부모 내외는 '어린 나무'에게 산의 일부가 되어 산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거주장소인 구두를 벗어 던지고, 부드러운 인디언 신발을 신고 산 속을 뛰어다니는 '어린 나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을 하나 둘 배우 나가며 숲에도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 넘게 장기 베스트셀러로 오르면서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누구나 한뼘쯤은 읽어봐야 할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원작과 함께 MP3 CD로 수록해 감동을 배가했다.

<아름드리미디어·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동산 정보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첨단지구 상가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권장업종: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울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토지매매, 건물매매. 위치 임대 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임 1,100만원